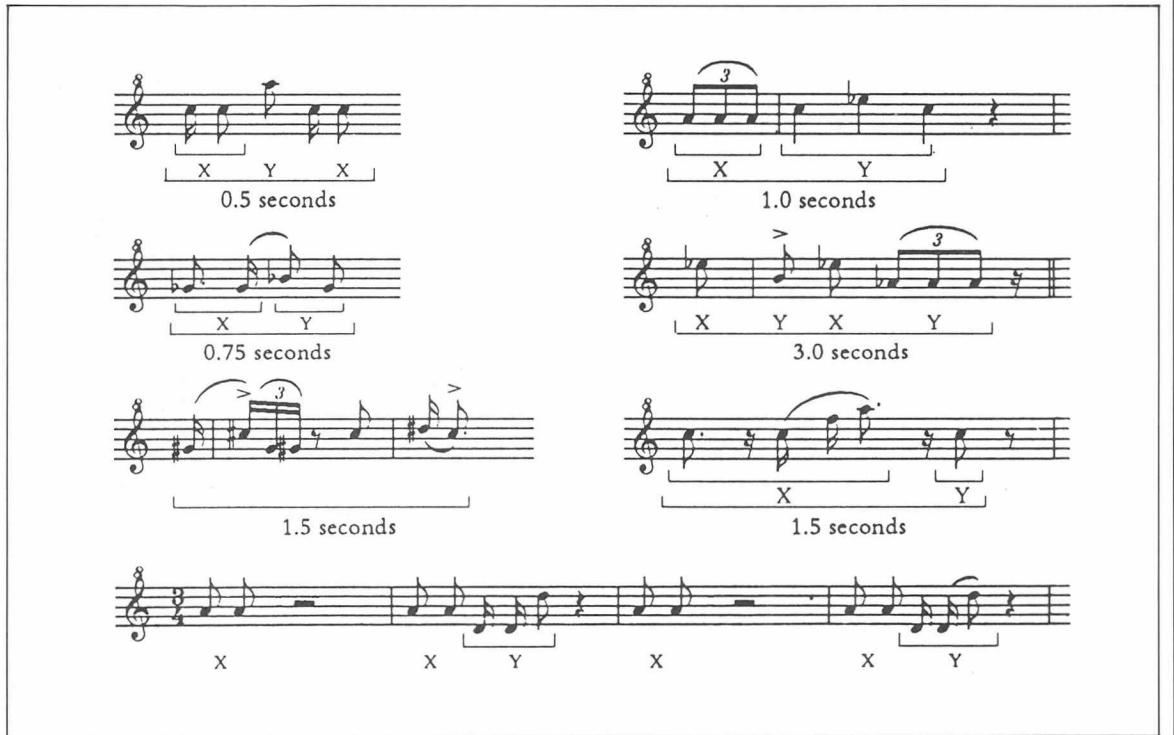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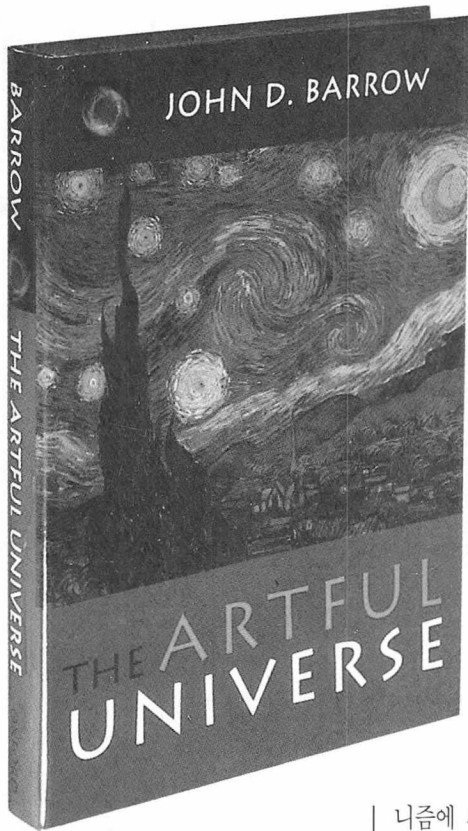


예술의 과학적 뿌리를 찾아서

존 D. 배로 《교묘한 우주 *The Artful Universe*》

김동광
과학세대 대표



자연계의 술한 소리들은 어떤 식으로든 패턴을 지니고 있다. 새들의 울음소리를 체보해보면 일정한 패턴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러시아의 영화감독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의 영화 <잠입자>의 세 등장인물 중 한명인 작가는 금지구역을 찾아가는 기이한 여행의 한 굵이에서 문득 이런 질문을 던진다.

“여러 예술 중에서 가장 비실재적인 예술 형태인 음악이 유독 직접적이고, 깊은 감명을 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실 음악은 어떤 실체도 갖지 않는다. 미술작품이나 소설책과 달리 악보(樂譜)는 음악이 아니다. 음악은 실재성을 거부하며 패턴이기를 고집하고, 바로 그 점이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심오한 감명을 준다’는 평을 무색하지 않게 하는지도 모른다.

‘창조성’의 진화경로 더듬어

그동안 우리는 예술을 인간만이 가지는 고귀한 무엇으로 간주하는 습관에 길들여져 왔다. 예술은 인간이 만들어낸 문화의 최고 봉이며, 인간의 심성 속에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본성, 그리고 창조성이 숨겨져 있다고 믿어왔다. 그렇다면 그 본성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다윈은 인류가 아득한 과거에 단세포 생물에서 출발해 자연선택이라는 냉혹한 메카

니즘에 의해 진화해 왔음을 명쾌하게 밝혀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생물들은 빛을 이용해서 외부환경을 인식하고, 먹이와 포식자(捕食者)를 구분하는 방법을 채택하게 되었다.

냄새나 소리 대신 빛을 이용해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은 그 자체로는 효율적이지만 그만큼 많은 비용(cost)을 지불해야 한다. 효율적인 눈과 그에 따라 상대적으로 고도의 뇌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며, 그에 따라 몸의 크기가 커져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눈의 선택, 그리고 눈의 성능 선택은 생물들마다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여기에 우열이라는 잣대를 들이밀어서는 안된다. 그것은 적응과 생존, 그리고 종(種)의 보존이라는 진화게임의 절대적인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선택의 문제이며, 인류는 큰 비용을 감수하고 고도의 눈과 그를 통한 정보처리방식이라는 진화경로를 선택한 것뿐이다. 이러한 진화의 경로에서 우리는 의식·지능, 그리고 창조성과 같은 정신적 특성의 창발(emergence) 과정과 그 조건들을 더듬어볼 수 있다.

‘크기’와 ‘음악’의 근원

크기(size)라는 문제는 우리들의 논의를

좀더 깊은 영역으로 이끌어간다. 원자에서 은하(銀河)에 이르는 크기의 순서는 결코 임의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자연을 지배하는 4가지 힘, 그리고 이 우주 안에서는 절대 변할 수 없는 자연의 상수(常數)들의 작용에 의한 균형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생물이 살아갈 수 있는 거주가능한(habitable) 행성, 그리고 그 행성 위에서 탄생하는 생물의 크기는 이처럼 자연의 기본력에 의해 제약을 받게 된다.

그리고 생물들 사이에서의 크기문제 또한 큰 차이를 불러온다. 가령 불의 사용은 인간의 크기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대기 중에서 타오를 수 있는 가장 작은 불꽃의 크기는 약 0.5센티미터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불을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서는(실용성이 있으려면), 그보다 훨씬 큰 크기가 필요하다. 불의 이용은 추위를 피하고 음식을 익혀먹을 수 있게 해주었고, 그만큼 많은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게 해주었다.

그러면 다시 음악에 대해 생각해보자. 찰스 다윈은 음악의 기원을 동물들이 짹기 상대를 구하기 위한 신호에서 찾으려 했다. 자연계에는 술한 소리들이 있다. 바람소리, 파도소리, 천둥소리 등. 그러나 이런 소리는 생물들이 내는 소리와는 분명한 차이를

갖는다. 생물계에서 나는 소리는 조화된 화성(和聲)이라는 특성을 갖는다. 말하자면 어떤 식으로든 패턴을 포함한다는 뜻이다.

다윈은 음악이 언어의 원시적인 선행형태이며 주된 기능은 짹기 상대의 관심을 끌기 위한 것으로 생각했다. (오늘날에도 유행가의 중심 주제는 사랑의 기쁨과 슬픔, 실연의 고통 등 온통 사랑타령이다.) 학자들 중에는 음악의 본질이 그 패턴에 있으며, 패턴인식이라는 측면에서 인류의 선조들이 가지고 있던 정신적 기능에서 음악과 언어라는 형태로 분화되어 나왔을 것이라고 설명하는 사람도 있다.

전문적인 음악가가 아닌 보통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소위 이지-리스닝 음악은 대부분 하모니를 포함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듣기 좋은 음악이 수학적 패턴으로 축소될 수 있다면 ‘음악이 무엇인가’라는 수수께끼가 풀릴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런 환원주의적 사고에는 많은 위험이 따른다.

환원주의적 사고

저자는 이 책 《교묘한 우주 *Artful Universe*》에서 그동안 우리들의 지성사가 가지고 있었던 한쪽 편향, 즉 예술로 대표되는 인

아름다운 한 인간의 이야기

《조선의 흙이 된 일본인》을 읽고

유순하 · 소설가

우리는 예술을 인간만이 지닌
고귀한 것으로 간주하곤 한다.
예술은 인간이 만들어낸
문화의 최고봉이며, 인간의
심성 속엔 창조성이
숨겨져 있다고 믿어왔다.
그렇다면 그 본성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배로는 이 책에서
그동안 인간이 지녀온 미학적
태도가 독립적인 실재인 양
바라보는 태도를 배격하고 있다.

간의 미학적 태도가 자신의 출신경로(동물적 배경)와 무관한 독립적인 실재(實在)인 양 바라보는 태도를 배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또다른 편향, 이른바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환원주의 역시 경계해야 한다.

저자는 이 책에서 오늘날 우리들이 구축한 복잡한 정신적 구조물의 토대를 엄밀한 과학적 태도와 풍부한 근거로 파헤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우주를 지배하는 기본력과 상수가 생명을 지탱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그런 행성 중 한곳인 지구에서 생물이 태어나 진화하는 과정, 그리고 그 속에서 인간의 정신활동을 가능하게 하며 상당 정도까지 규정짓는 토대로서의 '고정 회로'를 슬하게 발견하게 된다. 물론 그것들은 단지 조건의 일부를 확인하는 정도에 불과하다. 이 세계를 몇 개의 방정식으로 환원시킬 수 없듯이 예술의 풍요로움을 몇 가지 패턴으로 환원시킬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런 조건의 확인은 (아직 매우 미흡하지만) 매우 중요하다. 동물행동학자 데즈먼드 모리스는 "인류가 자신의 동물적 본성을 올바르게 이해할 때 오늘날 전지구적 규모로 닥쳐오는 환경문제를 비롯한 위기를 극복하는 길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인간의 정신활동과 창조성의 조건을 확인함으로써 그 내용을 더욱 풍부히 만들 수 있을 것이다. ❖

아사카와 다쿠미(1891~1931)라는 한 일본인이 있다. 글을 사랑한 집안의 유복자로 태어나 농사짓는 시인인 할아버지의 영향을 받으며 자라 농림학교를 졸업한 그는, 스물네 살에 당시 조선총독부 산림과의 용원이 되었다. 그는 청량리 임업시험장에서 일하면서 도자기로 대표될 수 있는 조선의 민예품에 대한 연구에 일생을 바친 끝에 마흔한 살에 급성 폐렴으로 죽었다.

조선을 이해하고 조선 사람을 사귀기 위해 애써 배워 조선말이 유창했고, 조선 사람과 조선 풍속을 사랑했던 그의 주검은 조선 땅에 조선옷을 입은 채로 조선식의 둥근 봉분 아래 묻혔다. 망우리에 있는 그의 무덤 앞에는 사후 50여년이 지난 뒤에 그의 옛날 동료가 포함된 한국인들이 세운 비석이 서 있다. 비석에는 이런 글이 음각되어 있다.

“한국이 좋아서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의 산과 민예에 온몸을 바친 일본인. 여기 한국의 흙이 된다.”

그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 《조선의 흙이 된 일본인》은 담백하면서도 드라마틱하고, 감동적이다. 처음에는 어떤 의무감에서 표지를 열었는데 나는 어느 순간엔가 책에 빨려들어갔고, 그가 죽어 생전의 친지들과 작별하는 격정적 장면에서는 콧잔등을 울려야만 했다.

다쿠미는 내겐 처음이 아니다. 언젠가 우리 도자기에 대한 글에서 우리에게 비교적

아사카와 다쿠미라는

한 일본인이 있다.

그는 청량리 임업시험장에서

일하면서 도자기로 대표될 수 있는

조선의 민예품에 대한 연구에

일생을 바쳤다. 조선사람과

조선풍속을 사랑했던 그의

주검은 조선땅에

조선옷을 입은 채로

조선식 봉분 아래 묻혔다.

잘 알려져 있는 야나기 무네요시(柳宗悅)와 함께, 다쿠미 그리고 다쿠미의 형이 되는 노리다카의 이름을 읽은 적이 있다.

바로 그들에 대한 이야기인 이 책에는 그들 외에 다쿠미의 할아버지 오비 시토모, 사별한 전처 미쓰에, 그 사이에서 태어난 딸 소노에, 후처 사키코, 누나 사카에, 전처의 남동생이며 친구인 마사토시 등이 등장하는데 그들의 삶, 그들의 언어, 그들의 만남, 그들의 헤어짐, 그들의 눈물은 하나같이 맑고 아름답다. 다쿠미의 오랜 친구인 야나기 무네요시의 추도문에 이런 구절이 있다.

“나는 그를 특히 인간으로서 존경했다. 나는 그 사람만큼 도덕적으로 성실한 사람을 알지 못했다.”

나는 이전에 역시 일본인이 쓴 일본인의 이야기인 《청빈의 사상》(나카노 고지 지음, 서석연 옮김, 자유문학사)을 청빈 자족한



유순하씨.

삶을 추구하는 일본인들의 태도에 대해 감명을 느끼며 읽은 적이 있는데, 《조선의 흙이 된 일본인》에 등장하는 사람들 하나하나가 그렇게 보인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인간적'이고, 그들의 관계 하나하나가 따뜻하고 소중하다. 음험한 복선도, 천박한 배신도 물론 없다. 그래봐야 대수롭지도 않은 이해 관계에 따른 일회적 만남과 헤어짐이 무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 대한 의혹이 질기에 그들의 관계는 눈부서 보이기까지 한다.

그리고 나는 또 느낀다. 이미 고인이 되어 유명을 달리던 그들을 낮은 발걸음으로 정성스레 좇고 있는 저자 다카사키 소지와, 다카사키 소지의 언어를 우리 언어로 공들여 옮기고 있는 번역자 이대원의 애정어린 눈길을. 그렇게 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이미 죽은 자와 아직 살아 있는 자의 맑은 교감은 또 하나의 생생한 드라마다.

그런데, 그런데 말이다. 황폐한 혼돈 상태로 보이는 우리네 출판물 유통 풍토에서 이런 책이 얼마나 독자를 만나게 될까? 그게 의문이다. 출판은 결코 자선사업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돈이 되지 않을 듯한 이런 부류의 책에도 공들이는 출판사가 더러나마 있었으면 하고 바란다. 그것이 돈을 만드는 적극적인 상술이 될 수도 있다. ❖

다카사키 소지 지음/이대원 옮김
나름/A5신/304면/8000원

